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채권

민지희 - [Mirae Asset FI Weekly] 추경 및 대외 금리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산업분석

글로벌 인터넷 - 정용제: '세컨드라이프'와 다른 새로운 메타버스 출현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2. 1. 6 (목)

리서치센터

KOSPI (1/5)	2,953.97P(-35.27P)
KOSDAQ (1/5)	1,009.62P(-22.04P)
KOSPI200 (1/5)	390.39P(-5.01P)
미국 DowJones지수 (1/5)	36,407.11P(-392.54P)
미국 NASDAQ지수 (1/5)	15,100.17P(-522.55P)
중국상해종합지수 (1/5)	3,595.18P(-37.15P)
NIKKEI225지수 (1/5)	29,332.16P(+30.37P)
유럽 STOXX600지수 (1/5)	494.35P(+0.33P)
독일 DAX지수 (1/5)	16,271.75P(+119.14P)
VIX (1/5)	19.73P(+2.82P)
원/달러 환율 (1/5)	1,196.89(+2.78)
엔/달러 환율 (1/5)	116.11(-0.05)
달러/유로 환율 (1/5)	1.13(0.00)
국고채 수익률(3년) (1/5)	1.91(+0.04)
미국채 10년 (1/5)	1.71(+0.06)
독일국채 10년 (1/5)	-0.08(+0.04)
금가격 (1/5)	1,825.10(+10.50)
구리가격 (1/4)	9,630.00(-52.00)
유가(WTI) (1/5)	77.85(+0.86)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3)	-3,212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3)	59억원
고객예탁금 (1/4)	665,702억원(-51,626억원)
신용잔고 (1/4)	234,196억원(+912억원)
대차잔고 (1/5)	706,917억원(+1,598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추경 및 대외 금리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민지희 jihee.min.a@miraeeasset.com

FI Check Point

연초 대규모 추경 집행 가능성 반영하며 국내 금리 큰 폭 상승

- 여당의 100조원의 대규모 추경 집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발의(1/3)
- 국내 채권시장, 추경 경계심에 연초효과 제한되며 금리 상승세 지속
-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폭은 줄어들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유지되면서 국내 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

Fixed Income
Market Issue

국내 추경, 경기 회복 기대감 높일 수 있으나 글로벌 경기 모멘텀도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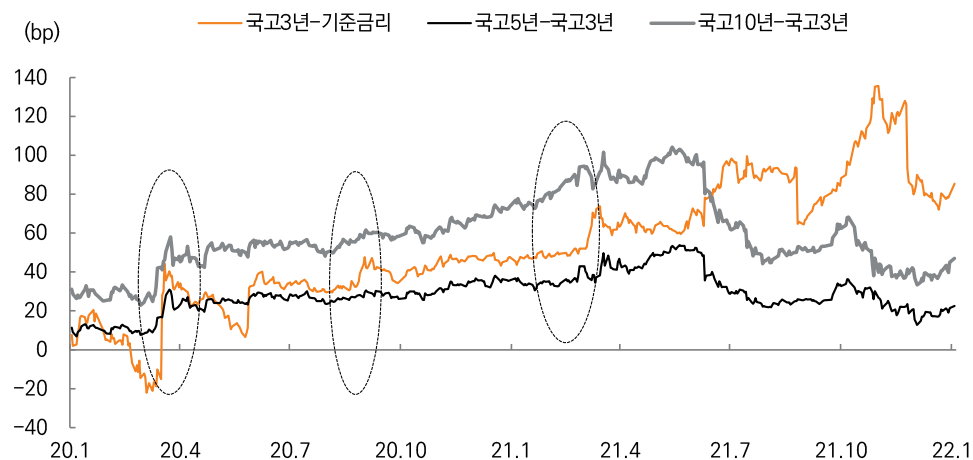
- 상반기 중 집행된 국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한 경험 없음. 국내 추경 규모, 시장 우려만큼 대규모로 집행될 가능성 낮음
- 따라서 이번 추경이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개선시킬 가능성 낮을 것
- 국내 추경 가능성 이미 충분히 선반영 했다는 판단. 국내 장단기 금리차(10-3년) 현 수준에서 추가 확대 제한 전망

Strategy

추경 불확실성 견히고, 1월 금통위 소화하면서 채권시장 투자심리 다시 회복 전망

- 미국 국채 장기금리도 연준의 긴축 경계심 당분간 이어지겠으나 펀더멘털 반영하며 추가 상승 제한 전망 유지
-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 및 국내 금리 레벨 메리트 고려하면 원화 장기채권은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그림 1. 팬데믹 이후 추경 집행 가능성 반영하며 국내 장단기 금리차(10-3년) 확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추경 이슈로 인한 금리 상승, 단기적 재료라는 판단

1) 이번 추경 규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조원대 이하가 될 가능성 높음

새해 첫 날 국내 금리는 대규모 추경 집행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전 구간 크게 상승했다. 팬데믹 이후부터 추경을 통한 국내 재정지출 확대 기조는 적자국채 발행량을 증가시키며 국내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며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를 견인했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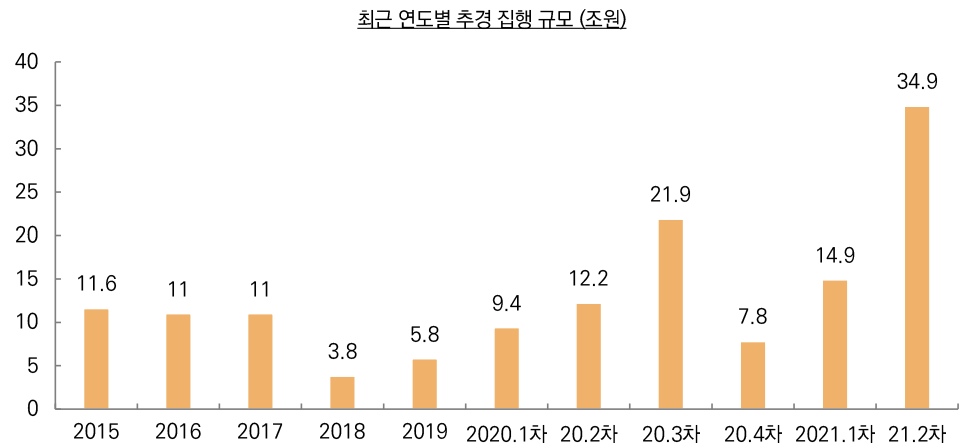
우리는 1월 월보를 통해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국내 금리의 추가 하락을 전망했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변수가 국내 추경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연초 집행되는 추경의 경우 추가 세수에 대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자국채 발행 방식을 활용한다. 따라서 추경 이슈는 국채 수급 상 당분간 국내 금리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정부 결의안에서 여당은 최대 100조원 규모까지 추경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국내 추경 중 최대 규모는 2021년 하반기 중 추가 세수로 마련된 34조원 규모였고, 대부분 추경은 20조원 미만으로 편성돼 왔다(그림2).

따라서 이번 추경도 여당 후보가 언급했던 25조원 이하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국내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도 상존하는 가운데 굳이 연초부터 무리하며 대규모 추경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경 이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금리는 다시 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과 국내외 경기 모멘텀의 문제로 되돌아 오면서 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2. 최근 국내 추경 규모는 21년 하반기에 집행된 추경을 제외하면 20조원을 상회한 경험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언론 참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장단기 금리차 현 수준에서 추가 확대 제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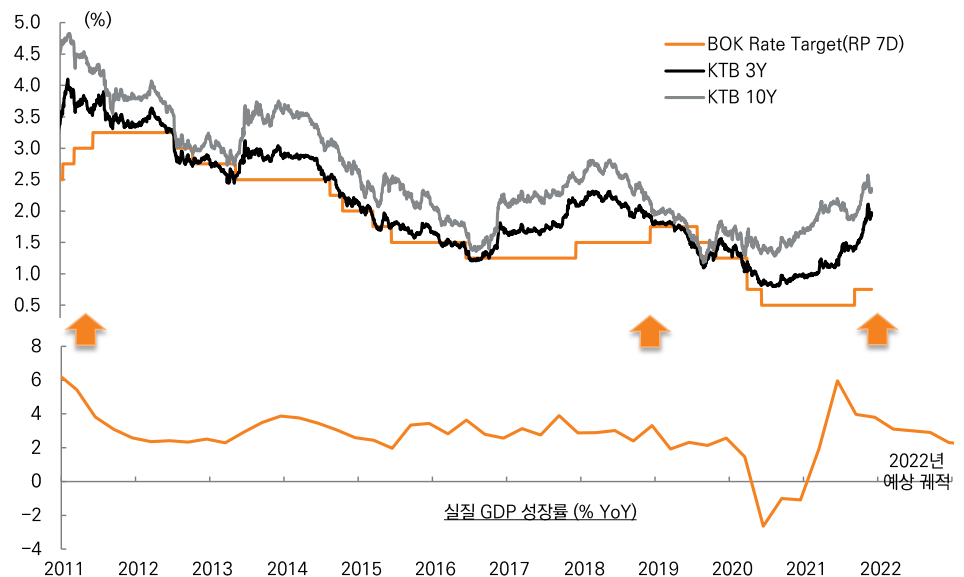
한편, 우리는 이전 자료를 통해(12/7 FI Weekly) 국내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우 국내 장단기 금리차가 30bp대에서 추가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분간 추경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될 수 있겠다.

다만, 국내 장단기 금리차는 국채시장 수급 뿐 아니라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한다. 따라서 40bp대까지 확대된 장단기 스프레드가 현 수준에서 추가 확대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추경 규모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보다 작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추경에 대한 우려는 금리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2010년 7월~2011년 6월)되며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꾸준히 축소되는 방향이었다(그림3). 현재는 연준의 긴축도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높아졌다.

최근 한은 총재는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1/4 발언). 후술하겠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불안은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그림 3.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뤄지며 국내 경기 둔화 속도 빨라지고 이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견인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2년 GDP 예상궤적은 당사 전망임.

2. 통화 긴축과 글로벌 경기 모멘텀도 고려할 필요

1) 이번 추경이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개선시킬 가능성 낮다는 판단

한편, 미국 10년 금리는 새해 첫 거래일 10bp 이상 상승하며 1.6%대를 돌파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과 더불어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림4).

우리는 이번 국면이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시작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겠으나, 현재 국내도 인플레이 상방 압력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 우려가 상존한다(그림5).

국내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은 당분간 국내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겠으나, 여전히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과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는 금리 하락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그림6). 따라서 미국 장기금리가 현 수준인 1.6%를 상회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며, 원화 장기채권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림 4. 연준, 3월 중 출구전략 종료 후 2Q 첫 번째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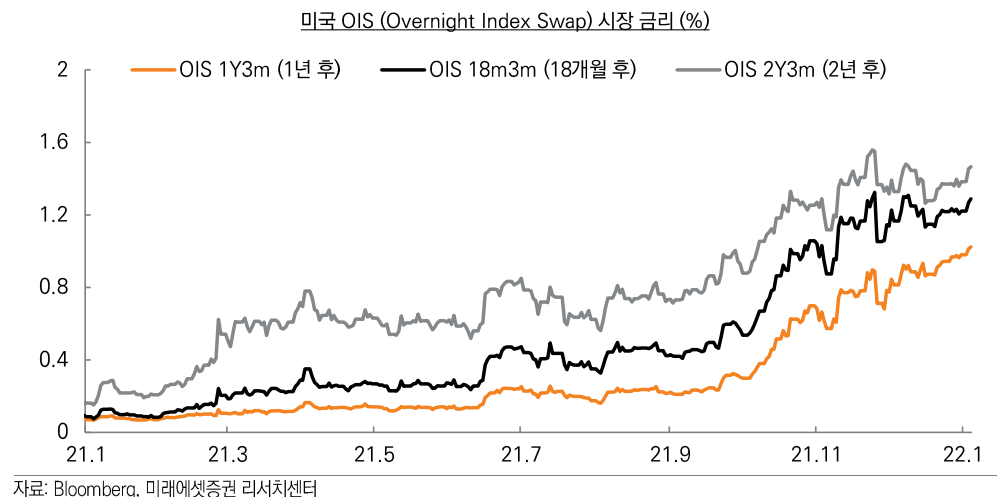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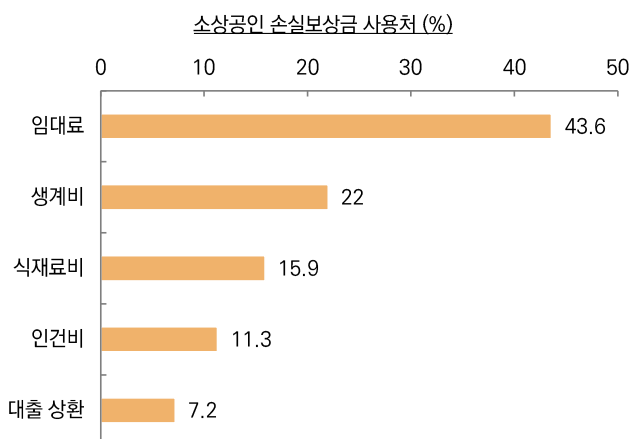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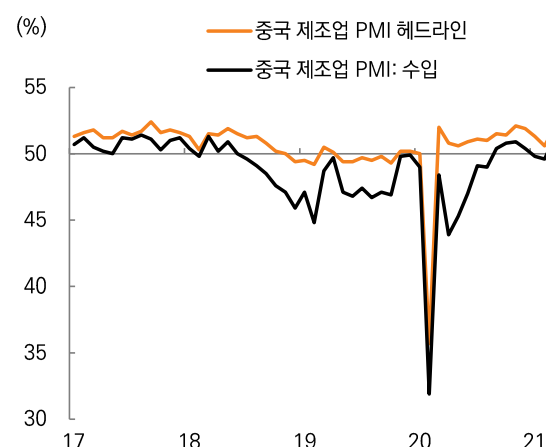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로 임대료와 생계비에 활용했음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2.01 발표) 자료 재인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한은 총재,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음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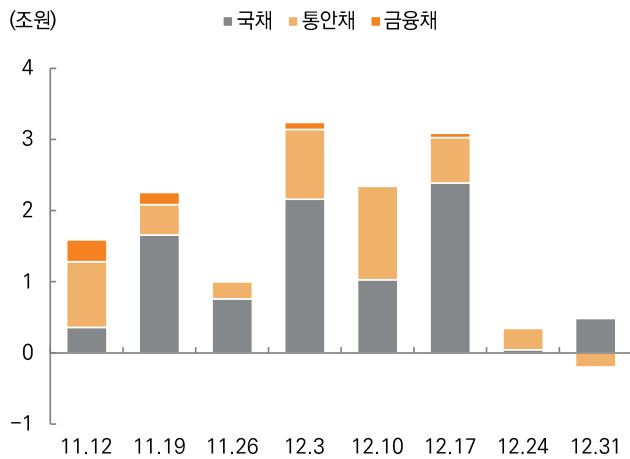
2) 국내 수급 환경 Review 및 Preview

2021년 9~10월 외국인은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FX시장 불안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확대했다. 그러나 11월부터 연말까지 국내 채권시장은 당사의 전망대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언급되고 있는 추경 경계심은 국내 채권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당분간 외국인 매수 폭을 21년 말에 비해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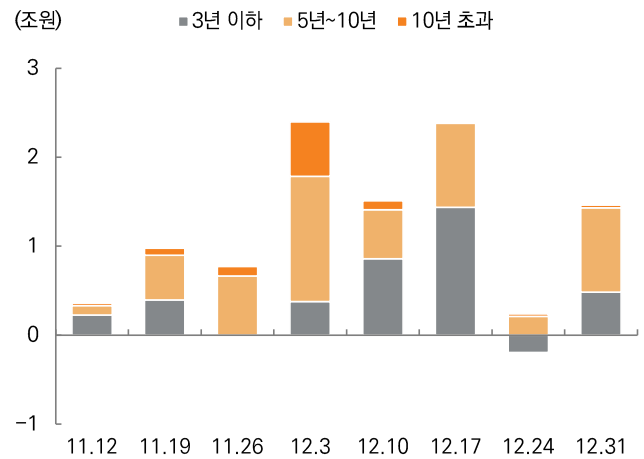
다만, 현 시점 추경으로 인한 국채 수급 우려에 단기간 크게 상승한 국내 금리 레벨 메리트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고 1월 금통위를 소화하며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금리 레벨 메리트에 의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단기 금리는 다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7. 21년 말에도 외국인 국채 매수 흐름 이어졌음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지난 주 외국인의 장기 국채 순매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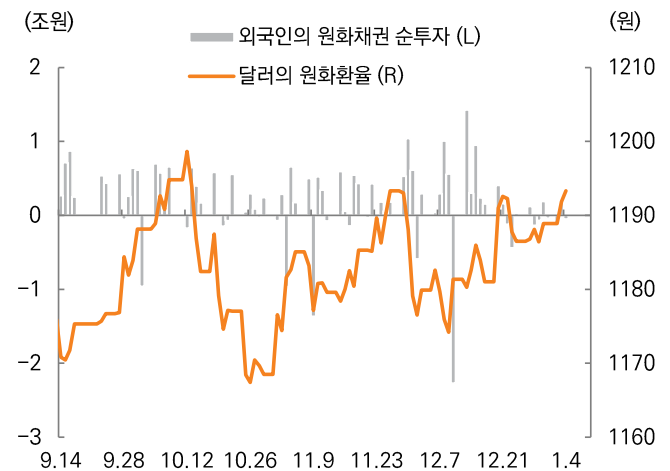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포지션 이어지는 중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원화환율 박스권 등락, 외국인 채권 순매수 기조는 유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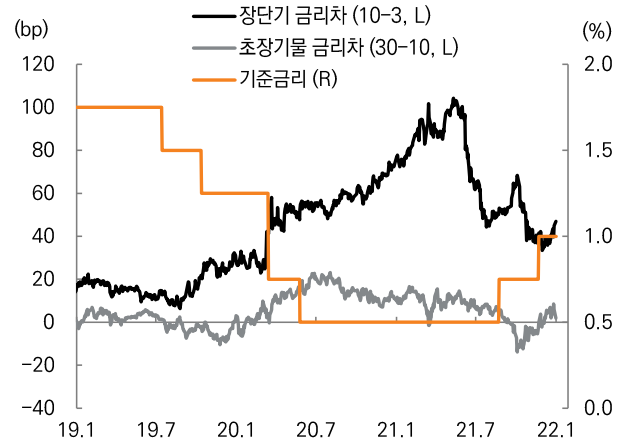
Fixed Income Market Chart

국고채 주요 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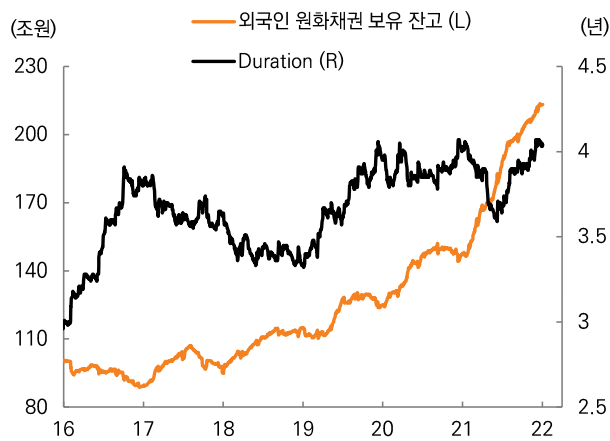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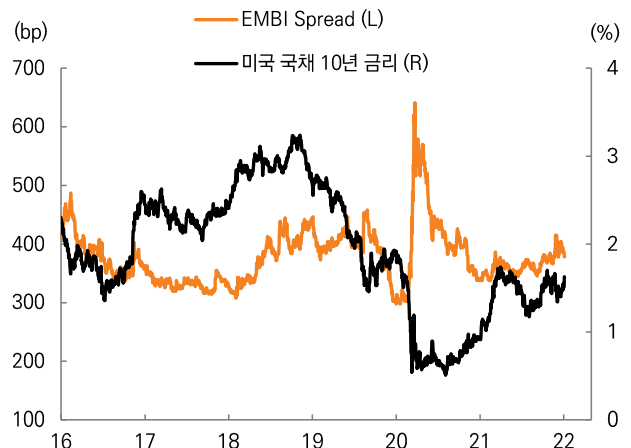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의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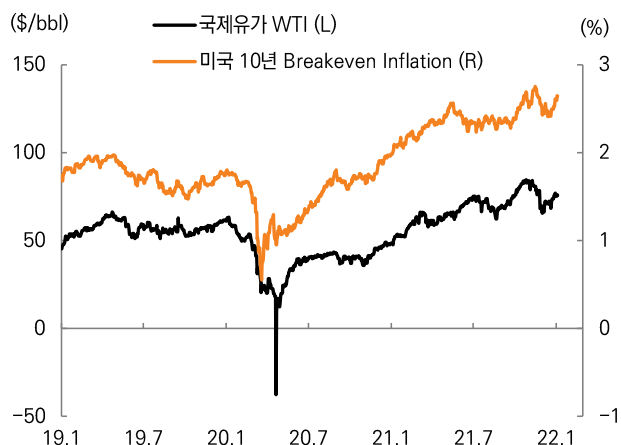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MBI 스프레드와 미국 장기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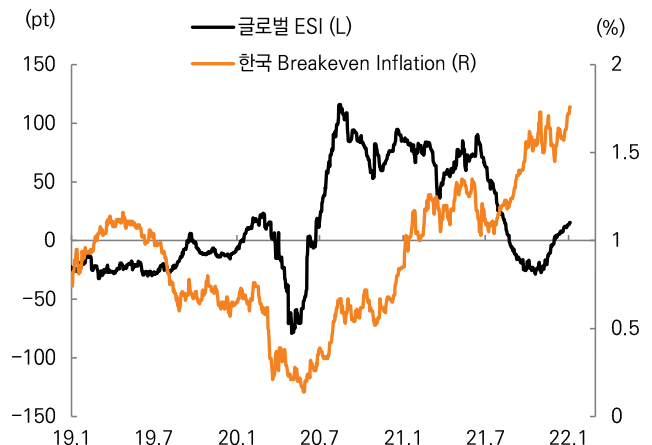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WTI 가격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 1월 Event Calend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한국) 국고채 30년물 입찰 (3.3조원)	4	5	6	7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8
9	10 (한국) 국고채 3년물 입찰 (2.5조원)	11 (한국) 국고채 2년물 입찰 (0.9조원) 국고채 50년물 입찰 (0.4조원) (미국) 국채 3년물 입찰 (520억달러)	12 (미국) 12월 CPI 발표 국채 10년물 입찰 (350억달러)	13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 (220억달러)	14 (한국) 1월 금통위	15
16	17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2.6조원)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휴장 (마틴루터킹 데이)	18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19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200억달러)	20 (미국) TIPS 10년물 입찰 (170억달러)	21	22
23	24 (한국) 국고채 5년물 입찰 (2.5조원) (미국) 국채 2년물 입찰 (540억달러)	25 (미국) 1월 FOMC 국채 5년물 입찰 (550억달러) (한국) 2021년 4Q GDP 발표 국고채 20년물 입찰 (0.8조원)	26 (미국) 1월 FOMC	27 (미국) 국채 7년물 입찰 (530억달러)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	28	29
30	31 (한국) 설날 연휴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FRB, 언론 참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세컨드라이프’와 다른 새로운 메타버스 출현

정용제, CFA yongjei.jeong@miraesasset.com

‘디센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의 토지 활용도 증가

지난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는 3월 첫번째 ‘패션위크’ 진행 발표

- 캐나다 가상자산 투자 기업인 토큰스닷컴이 매입한 토지 (2.4백만달러)에서 진행 예정
- 11월에는 아타리가 아타리월드 구축 위해 더샌드박스의 토지를 4.3백만달러에 매입
- 한국 제페토도 꾸준한 신규 브랜드 기업 확보. 패션 브랜드, 자동차, 콘텐츠 기업 확대
- 세컨서울은 12월말 베타 서비스 중단. 서비스 보완 후 추후 정식 출시 언급

‘세컨드라이프’와 다른 새로운 메타버스. 중장기 지속 가능성 강화: 1) 콘텐츠 확대, 2) 참여 이유의 변화

현재 메타버스는 ‘세컨드라이프’와 콘텐츠의 양 측면에서 다름. 중장기 지속성 강화

- 세컨드라이프는 2003년 출시. 최대 사용자 13백만명, 실제 경제 생활 영위도 가능
- 그러나 2008년 이후 급속한 쇠퇴. 구글 ‘라이블리’도 마찬가지. SNS와 경쟁 확대 때문
- 이에 현재 메타버스도 세컨드라이프와 유사성에 따른 우려 존재. 그러나 차별점 존재
- 핵심 차이점은 콘텐츠의 양. 사용자는 세컨드라이프에서 주어진 제한된 콘텐츠만 소비
- 최근 메타버스는 창작자가 핵심. 콘텐츠 공급량 증가로 선순환 네트워크 효과 확보
- 로블록스가 대표적. 11월 기준 개발자 10.5백만명, 경험 수 27백만개 존재

중장기 지속성 강화의 또 하나의 핵심 근거는 ‘참여 이유’. 탈중앙화 운영이 핵심

- 창작자와 더불어 현재 메타버스의 핵심 변화는 사용자의 참여 이유의 변화
- 이러한 변화는 권리 인정 (ex. NFT)을 통해 가능. 소유권 확보 및 수익화도 가능
- 더구나 디센트럴랜드, 더샌드박스는 운영도 탈중앙화 조직인 DAO 적용 (예정)
- 디센트럴랜드는 MANA 1개당 1개 투표권, LAND는 2천개 보유. 직접 운영에 참여
- 1) LAND 개선, 2) LAND 경매, 3) 수수료, 4) 커뮤니티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 더샌드박스도 2022년 DAO 적용 예정. 이는 결국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귀결

중장기 지속성과 사용 기능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에 주목. 상장기업 중 메타, 로블록스

중장기 지속성 확보와 신규 플랫폼의 사용 기능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에 주목

- 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가상 공간 플랫폼은 디센트럴랜드, 더샌드박스
- 가상 부동산은 어스2, 업랜드와 세컨서울, 트윈코리아, 메타버스2, 메타렉스가 존재
- 디센트럴랜드는 사용 기능 예시로 1) 콘텐츠, 2) 광고, 3) 수집품, 4) 소셜 등을 언급
- 로블록스도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을 넘어 소셜미디어, 스트리밍비디오 시장 진출 추진
- 이러한 전략이 1) 창작자 확대와 2) 참여 이유의 변화와 맞물리며 시장 확대 가능

대부분 비상장이지만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 (FB US), 로블록스 (RBLX US)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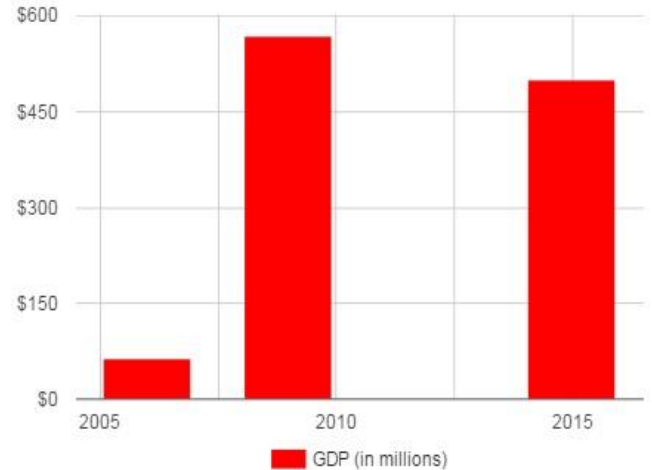
- 메타는 기존 페이스북의 기능 확대와 ‘호라이즌 월드’ 등 신규 플랫폼 전략 확대
- 로블록스는 개발자 생태계 확대로 콘텐츠 → 사용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단기 주가 변동보다는 중장기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 확보 가능성에 주목

그림 1. 세컨드라이프 플레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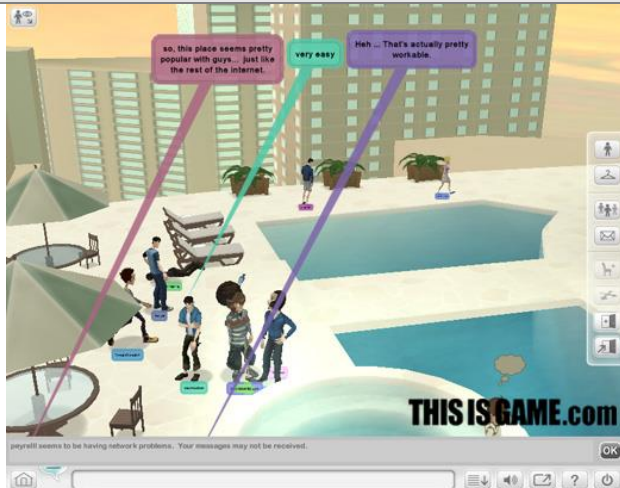
자료: 세컨드라이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세컨드라이프에서 발생한 GDP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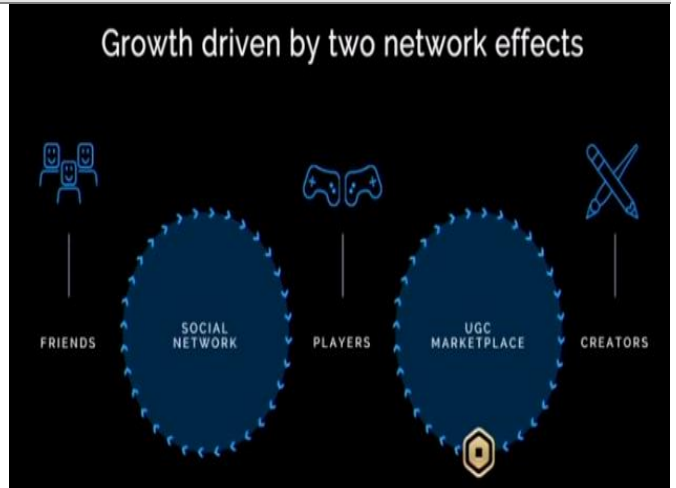
자료: TheNextWe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008년에 출시된 구글의 '라이블리 (Lively)': 현재 종료



자료: 구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게임 (메타버스) 의 성장 방법: U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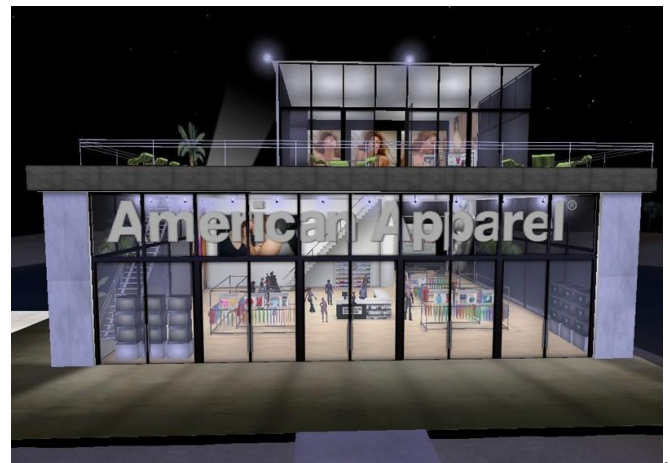
자료: 로블록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세컨드라이프에 입점한 주요 브랜드

산업군	브랜드
자동차	토요타, BMW, 벤츠, 폰티악, 마쯔다, 닛산
IT	인텔, 시스코, AMD, IBM, 선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미디어	로이터, BBC, 스카이뉴스, AOL, 채널4
엔터테인먼트	MTV, 소니 BMG, 선댄스
리테일	아디다스, 리복, 아메리칸 어패럴, 캘빈클라인, 시어스
통신	보다폰, 소니 에릭슨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세컨드라이프에 만들어진 '아메리칸 어패럴'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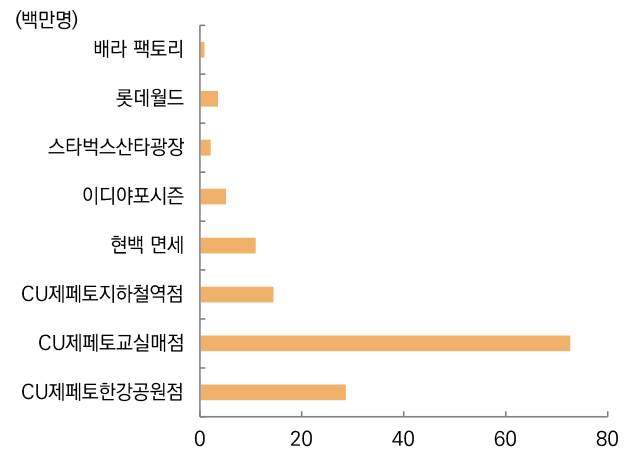
자료: Impactsocialmed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CU제페토 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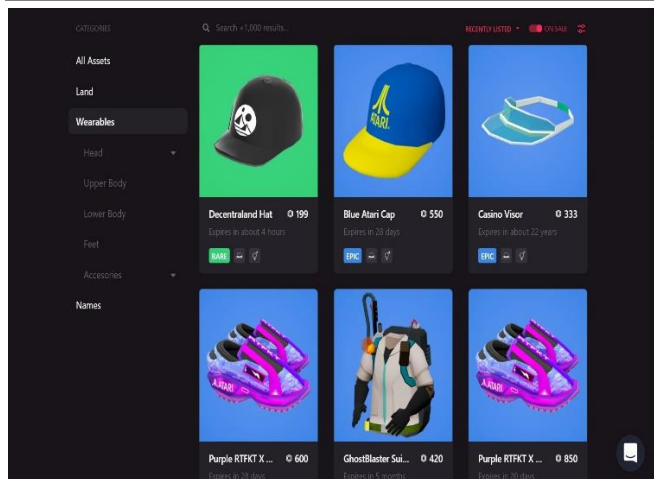
자료: 제페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제페토내 주요 지역 방문자 (2021년 12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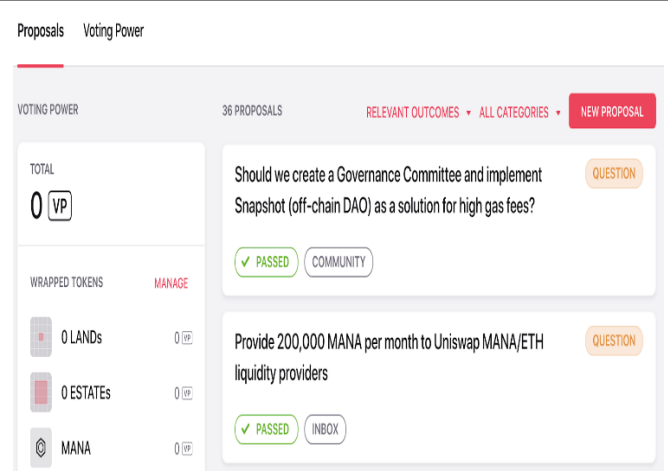
자료: 제페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디센트럴랜드 마켓플레이스



자료: 디센트럴랜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디센트럴랜드의 DAO 제안



자료: 디센트럴랜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디센트럴랜드의 새해 파티



자료: 디센트럴랜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디센트럴랜드 LAND 가격 분포



자료: 디센트럴랜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2. 1. 6 (목)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1/5)	2,953.97	-1.18	-1.31	-0.65	-0.19	-1.22
KOSDAQ (1/5)	1,009.62	-2.14	-1.79	1.79	5.89	2.42
KOSPI200 (1/5)	390.39	-1.27	-1.60	-0.63	0.58	-3.85
일본 NIKKEI225 (1/5)	29,332.16	0.10	1.47	5.03	5.98	8.00
중국 상해종합 (1/5)	3,595.18	-1.02	-0.05	0.16	0.76	1.88
홍콩 항셱 (1/5)	22,907.25	-1.64	-0.78	-1.89	-7.26	-17.15
홍콩 HSCEI (1/5)	8,015.70	-2.01	-1.03	-3.13	-8.00	-25.60
대만 TWSE (1/5)	18,499.96	-0.14	1.38	4.59	10.69	23.33
인도 SENSEX (1/5)	59,855.93	0.00	3.55	5.48	0.30	23.57
베트남 VSI (1/5)	1,522.50	-0.20	2.47	7.71	11.46	34.43
인도네시아 JCI (1/5)	6,662.30	-0.49	0.93	1.76	3.83	8.55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5)	1,196.89	0.23	0.86	1.21	0.52	10.07
달러/유로 (1/5)	1.13	0.24	-0.31	0.26	-2.06	-8.00
엔/달러 (1/5)	116.11	-0.04	1.01	2.32	4.01	13.04
원/엔(100엔) (1/5)	1,031.74	0.07	0.08	-0.82	-3.30	-2.54
위안/달러 (1/5)	6.36	-0.14	-0.06	-0.19	-1.26	-1.43
달러인덱스 (1/5)	96.17	-0.09	0.25	-0.16	2.07	7.53
원/해알 (1/5)	209.38	-0.32	0.46	0.67	-2.95	1.78
해알/달러 (1/5)	5.72	0.56	0.40	0.53	3.58	8.33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5)	1.00	0.00	0.00	0.00	25.00	50.00
CD(91일) (1/5)	1.30	0.00	2.00	3.00	25.00	64.00
LIBOR(3개월) (1/4)	0.22	0.69	-0.19	2.84	9.20	-2.13
국고3년 (1/5)	1.91	4.50	13.00	4.80	20.90	97.70
국고10년 (1/5)	2.38	5.50	19.50	16.20	-1.20	68.40
회사채3년(AA-) (1/5)	2.51	3.20	9.70	7.00	34.80	33.30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5)	0.83	6.80	8.40	19.40	52.00	70.90
미국채 10년 (1/5)	1.71	5.70	15.50	27.30	13.10	74.70
독일국채 10년 (1/5)	-0.08	3.80	10.00	30.40	10.10	49.30
일본국채 10년 (1/5)	0.09	-0.20	2.30	4.10	1.50	7.50
인도국채 10년 (1/5)	6.51	-0.90	4.70	14.90	24.10	68.40
중국국채 10년 (1/5)	2.81	1.50	1.30	-5.70	-7.10	-33.10
브라질국채 10년 (1/4)	11.27	22.10	54.20	20.40	22.90	439.6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4)	2,456.22	-0.13	-0.28	1.25	0.84	5.06
FTSE글로벌리츠지수(p) (1/5)	3,746.64	-1.68	-1.30	3.36	8.62	33.30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1/5)	36,407.11	-1.07	-0.22	3.35	4.75	19.79
미국 S&P500 (1/5)	4,700.58	-1.94	-1.93	2.37	6.84	26.13
미국 NASDAQ (1/5)	15,100.17	-3.34	-4.22	-0.82	3.04	17.80
유로 STOXX50 (1/5)	4,392.15	0.56	2.50	6.16	7.17	23.80
독일 DAX30 (1/5)	16,271.75	0.74	2.65	5.79	6.69	19.20
영국 FTSE100 (1/5)	7,516.87	0.16	1.30	3.93	6.20	13.68
브라질 보베스파 (1/5)	101,005.60	-2.42	-2.98	-5.48	-8.66	-15.39
러시아 RTS(\$) (1/5)	1,586.20	-2.24	-0.22	-2.21	-14.44	11.23
필라델피아반도체 (1/5)	3,879.87	-3.22	-2.99	2.10	18.49	36.75
나스닥헬스케어 (1/5)	1,079.96	-3.79	-5.87	-1.71	-10.38	-8.93
VIX (1/5)	19.73	16.68	16.40	-27.41	0.97	-22.14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1/5)	77.85	1.12	1.68	12.03	-0.57	55.92
원유 Brent (1/5)	80.21	0.26	1.24	9.76	-2.12	49.65
원유 Dubai (1/5)	77.64	1.36	1.48	10.22	-0.72	55.81
휘발유 NYMEX (1/5)	229.21	0.69	0.90	12.18	-1.81	57.85
천연가스 NYMEX (1/5)	3.88	4.44	-3.53	6.15	-31.62	43.67
석탄 ICE (1/5)	137.30	5.53	-0.76	12.36	-40.98	111.56
플라스틱 (1/5)	29.87	2.43	2.43	-6.66	-11.47	182.59
태양광 모듈 (1/5)	0.21	-0.48	-0.48	-3.29	0.98	21.89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1/5)	690.50	1.47	2.30	15.47	-3.43	-37.34
중국 열연(위안) (1/5)	4,780.00	0.74	0.59	-0.79	-17.60	3.67
구리 LME (1/4)	9,630.00	-0.54	0.67	1.85	6.03	21.42
알루미늄 LME (1/4)	2,823.00	0.46	-0.65	7.38	-2.25	40.03
금 COMEX (1/5)	1,825.10	0.58	1.11	2.68	3.82	-6.62
은 COMEX (1/5)	23.17	0.49	1.41	4.24	2.26	-16.17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1/5)	602.25	-1.19	-0.54	3.21	12.78	22.47
소맥 CBOT (1/5)	760.75	-1.20	-3.43	-4.55	2.63	16.32
대두 CBOT (1/5)	1,384.25	0.40	2.05	9.73	10.98	2.54
설탕 ICE (1/5)	18.34	-2.19	-3.98	-4.28	-7.56	13.77
천연고무 TOCOM(엔) (1/5)	229.00	1.91	2.69	3.39	16.24	-17.03
BDI (p) (1/4)	2,285.00	3.07	3.07	-27.94	-59.54	66.30
SCFI (p) (12/31)	5,046.66	1.83	1.83	9.66	9.37	81.34
DDR4 8G (1/5)	3.70	0.11	1.92	6.19	-5.77	11.54
NAND TLC 128G (1/5)	1.99	0.00	0.00	-0.10	-3.35	20.75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2. 1. 6 (목)

유가증권시장			01/05 (수)	01/04 (화)	01/03 (월)	12/30 (목)	12/29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953.97	2,989.24	2,988.77	2,977.65	2,993.29
	이동평균	20일	2,995.03	2,996.92	2,996.12	2,995.09	2,993.48
		60일	2,982.99	2,982.36	2,981.81	2,981.32	2,980.17
		120일	3,072.18	3,074.62	3,076.53	3,078.72	3,081.29
	이격도	20일	98.63	99.74	99.75	99.42	99.99
		60일	99.03	100.23	100.23	99.88	100.44
	거래대금(억원)		154,284.2	99,914.7	81,938.9	87,274.6	109,086.7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60	70	60	60	70
	ADR		101.75	103.66	105.43	124.47	134.49
코스닥시장			01/05 (수)	01/04 (화)	01/03 (월)	12/30 (목)	12/29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1,009.62	1,031.66	1,037.83	1,033.98	1,028.05
	이동평균	20일	1,011.99	1,011.34	1,009.35	1,007.38	1,004.56
		60일	1,005.64	1,004.48	1,003.17	1,001.77	999.91
		120일	1,016.65	1,016.86	1,016.84	1,016.81	1,016.92
	이격도	20일	99.77	102.01	102.82	102.64	102.34
		60일	100.40	102.71	103.46	103.22	102.81
	거래대금(억원)		120,478.5	121,394.2	100,925.8	101,026.1	116,836.1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80	90	90	80	80
	ADR		105.08	106.12	103.03	114.40	134.49
자금지표			01/05 (수)	01/04 (화)	01/03 (월)	12/30 (목)	12/29 (수)
국고채 수익률(3년, %)			1.91	1.87	1.86	1.80	1.78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50	2.48	2.46	2.41	2.40
원/달러 환율(원)			1,196.89	1,194.11	1,191.81	1,189.05	1,186.68
원/100엔 환율(원)			1,031.74	1,030.99	1,034.46	1,033.61	1,030.87
CALL금리(%)			-	0.99	0.99	1.33	1.05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82	-316	670	207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518	41	-294	493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33	23	13	-60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5,986	741	2,532	-2,093
MMF 잔고(억원)			-	1,472,424	1,366,331	1,379,859	1,484,405
고객예탁금(억원)			-	665,702	717,328	696,535	680,015
미수금(억원)			-	2,243	2,717	3,241	2,392
신용잔고(억원)			-	234,196	233,284	230,972	231,488
해외 ETF 자금유출입			01/05 (수)	01/04 (화)	01/03 (월)	12/30 (목)	12/29 (수)
한국 관련 ETF(억원)			-	-	-	-	-
이머징 관련 ETF(억원)			-	19.5	-	-	51.2
아시아 관련 ETF(억원)			8.4	2.2	-81.2	117.3	1.2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66.0	208.3	158.3	345.7
Total(억원)			8.4	87.6	127.1	275.7	398.1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